

합격기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하면 된다



박 상 룡

- 대구 능인고등학교 졸업
- 경북대학교 법대 재학
- 제53회(2011년) 사법시험 합격

I. 서

시험공부를 하는 동안 고시계의 합격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합격기를 쓰는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 글을 쓰고 있다니 참으로 영광스러운 기분입니다.

저의 수험생활 및 공부방법은 수많은 합격생들 중 일인의 경험일뿐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쉬어가는 마음으로 편히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II. 1차 시험공부

1. 기본강의 (3월~8월)

기본강의 시간은 가장 넉넉히 연습하고, 학원 강의를 듣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본강의를 수강하실 때 마지막 듣는 강의라고 생각하고 집중하여 들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기간은 상대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책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책을 꼼꼼히 읽다보면 많은 의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는 것은 학원 강사나 주변 선배나 친구에게 물어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푸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기출문제는 시험 문제의 유형과 중요한 부분을 알게 해주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기본강의 동안 연습하고 수업듣고 복습하고를 반복하였습니다.

2. 진도별 모의고사 (9 ~12월)

저는 진도별 모의고사 기간에 학원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시험문제만 풀었습

니다. 강의를 듣는 것보다 혼자 공부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강의 때는 복습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면 진도별 모의고사 기간에는 예습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진도가 상당히 빨리 나가기 때문에 예습과 문제 풀이 복습 시간안배와 체력안배를 잘 하여야 합니다. 매일 시험을 치루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 힘들수록 합격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이겨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당락이 결정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강의를 충실히 수강하였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열심히 따라가셨거나 이 기간동안 본인이 계획한대로 진도를 뺐었다면

상당부분 합격에 가까워 졌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진도별 모의고사 끝무렵에는 시작시에 인원에 반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이겨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결과와 있을 것입니다.

3. 마무리 기간 (1월~2월)

저는 진도별 모의고사 기간 이후 기본서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본서를 빠르게 3번정도 보는 계획을 세웠고, 전국 모의고사 문제집을 구입해 각 한편씩 풀었습니다. 이 기간에 막판 OX문제집을 많이 보시곤 하는데 자신의 기본서에 정리를 잘 해 놓으셨다면 그냥 기본서로 밀고 나아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판에 새로운 책을 보는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험전날 편히 마음 먹고 지금까지 푼 전국 모의고사 틀린 부분 위주로 스킵하고, 기본서를 스킵하였습니다.

4. 소결

민법-지원림저(이태섭강사)

형법-신호진저(신호진강사)

헌법-정희철저(김현석강사)

저는 위 책들을 기본서로 정하고 공부하였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목표가 남들이 많이 보는 책을 선택해서 남들보다 조금더 공부해서 안전하게 합격하는 것 이었습니다. 1차 공부는 기출문제를 잘 풀이 하시는게 키 포인트인거 같습니다.

III. 2차 시험공부

1. 예비순환

1차 시험합격 후 합격자 발표 때 까지 많이 휴식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이후 본격적으로 돌아버려서 예비순환을 듣지 않았습니다.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쳐있었고, 한편으로는 초시이후 1년 열심히 하면 합격할수 있을거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1순환부터 열심히 하자는 마음에 책을 전혀 보지 않아서 초시때 6과락이 나왔습니다.

2. 1순환 및 2순환사소송법

1순환은 1차 기본강의와 같이 예습, 강의, 복습이라는 큰 흐름을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후사법은 예비를 듣지 않아 처음 접해서 익숙해 지는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민소법, 행정법이 틀을 잡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것 같습니다.

1순환때 후사법은 개념을 익힌다고 정신 없었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 위해 큰 틀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 기본3

법은 기본서를 정리하면서 사례집을 조금씩 보았습니다.

2순환부터 기본서와 사례집을 동시에 보면서 정리해 나갔습니다. 기본서와 사례집을 동시에 보다 보니 매일매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였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1순환이 기본서 위주라면 2순환은 기본서와 사례집 비율을 반반 정도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는 1순환만 수강하였고, 2순환부터는 문제풀이반을 수강하였습니다. 강의를 듣지 않으면 불안감이 생기지만 공부는 결국 스스로 하는 것이기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순환 때 각 과목별로 판례를 작은 연습장에 기재해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판례가 민법은 약 200개 나머지 과목들은 약 100여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판례들을 외웠습니다.

3. 3순환 및 그 이후

3순환은 숨 넘어갈듯 자고 일어나서 먹고 책 보고 학원가서 문제 풀고를 반복한거 같습니다. 하루하루 해야될 양이 상당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든시기였습니다. 저는 3순환때는 과목마다 기본서나 사례집 한권을 선택했습니다. 2권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3순환쯤 되면 1,2순환과 달리 글이 좀 써지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법전만 있으면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3순환부터 시험을 치는 시간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모를만큼 정신없이 바쁜 생활이

였습니다. 3순환이 끝나고 혼자 빠르게 과목들을 보며, 시험감각을 유지 하기 위해 하루에 1시간정도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참 중요한거 같습니다. 문제를 풀다보면 알고 있는것과 모르고 있는것, 잘못알고 있는것, 알고 있었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명확히 나뉘는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많은 문제를 접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소결

2차공부는 1년 동안 누가 더 성실하고 그리고 꾸준히 공부를 해나아가는 지가 당락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2차 공부를 시작해서 끝날때까지 체력과 정신력이 약해 집니다.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반드시 합격하겠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법시험 2차기간인 4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2차 공부 역시 강의보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이시윤 기본서, 이창한 사례집

상법-김혁봉 기본서, 황의영 사례집

형법-이재상 기본서, 신이철 사례집

행정법 -정성균 역기스, 박정훈 사례집

민법 - 민법교안, 윤동환 사례집

형법 - 이재상 기본서, 이재상 사례집

헌법 -정희철사례집

위 책들은 아마 신림동에서 대부분의 고시생들이 보는 책일 것입니다. 2차 공

부 역시 남들이 많이 보는 책을 선택해서 남들보다 조금더 공부해서 합격하자는 계획을 세워서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국 기본서나 사례집이나를 선택할 시기가 왔을 때 무엇을 봐도 되니 읽기 편하신 과목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IV. 끝맺는 말

이렇게 합격수기를 쓰고 있으니 그동안의 수험기간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아주 먼일 같으니 사람의 기억이 참 간사한거 같습니다. 수험기간 2년 4개월 남짓 공부를 많이 하였고 후회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연수원에서 체육대회를 무사히 보내고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으시고 합격기를 쓰는 기분좋은 그 날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느라 귀중한 시간을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험을 합격한 것은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입니다. 꼭 합격하시어 연수원에서 만나뵈실 기회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합격의 기쁨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막내 아들의 합격을 축하해주실거라 믿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동생의 뒷바라지를 해주신 형님께도 감사드리며, 친척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나간 수험기간을 함께 웃고, 함께 공부하며 함께 보내준 러닝 메이트인 친구 정경원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시생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한 친구 박종찬군과, 채동화군에게 감사 드리며, 주호영선배님, 구명본선배님, 김민혁선배님, 김성훈선배님, 김동진군, 신덕기군, 황영동군, 이병훈군, 지범희의 모든 멤버들 및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조인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다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